

식민 상황과 李泰俊 自傳小說의 변모 양상

- <故郷>, <思想의 月夜>를 중심으로

김 도 희*

차 례

- | | |
|--------------------------------|-----------------|
| I. 序論 | IV. 격차 큰 美學的 優劣 |
| II. <故郷> - 歷史·社會 속의 '나'의 현실 비판 | V. 結論 |
| III. <思想의 月夜> - 閑談에 머문 단순 회고 | |

I. 序論

1988년, 북으로 간 작가에 대한 해금 조치가 있었던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오랜 기간 동안 잠재워져 있었던 많은, 북으로 간 작가의 작품들과 그에 대한 논의들이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슨 유행처럼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제는 그 연구 성과물에 대해, 한 번쯤 좋은 의미에서의 자기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양의 연구를 축적에만 만족해 하기보다는 보다 미시적이면서 또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연구자는 북으로 간 작가들 중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경향 변모 또한 현저히 드러내는 李泰俊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택하였다.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李泰俊은 1925년에 단편 <五夢女>를 발표하면서 등단한, 순수 문학가로 지목받던 작가다. 그는 경향 문학이 퇴조하던 1930년대 「구인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한 사람이다. 당시 「구인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문단 활동을 한 사람으로는 李泰俊·朴泰遠·李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뚜렷한 이념이나 주장을 표방하지 않은 채, 언어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문학 자체 내의 자율적 규범을 중요시한 순수 문학 세계를 추구한 사람들이다. 특히 李泰俊은 「카프」에 대항하는 순수 문학 단체인 「구인회」를 중심으로 순수 문학을 추구했다 하여 ‘비경향 문학이 낳은 가장 큰 작가’¹⁾ 혹은 ‘한국 순수 문학에 있어서 소설계를 대표하는 최초의 기수’²⁾라는 언급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李泰俊은 시대 상황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로, 그때그때 시대 상황의 변화는 그의 작품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일제가 한국에 대해 宥和政策을 펴고 있었던 등단 초기의 <五夢女>와 같은 작품에서는 자연주의적인 성격을 띤 순수소설적 경향을 보였다. 이후 1930년대 초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에서 오는 갖가지 모순을 꿰뚫어 보고 <어떤날 새벽>, <꽃나무는 심어 놓고>, <흔뜨기>, <失樂園 이야기> 등과 같은 현실 비판적 성격을 띤 소설을 발표한다. 그러다 일제의 식민 통치 체제가 극단적인 탄압으로 치닫자 현실을 외면하는 <黃眞伊>, <王子好童>과 같은 대중성을 띤 역사소설로 돌아서기도 했고 나중에는 <青春茂盛>과 같은 대일협력적인 소설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일제는 1931년 중반 이후 문인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1940년대에는 그것이 극악한 상태에 이르렀다. 李泰俊의 소설은 이, 문인에 대한 탄압과 접점이 강화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필자는 李泰俊의 그와 같은 변모 양상을 그의 자전적인 소설들 중 단편 <故郷>과 장편 <思想의 月夜> 두 편을 텍스트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텍스트를 위의 두 작품으로 한정할 이유는 두 소설이 다같이 명백한 자전적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발표 시기의 시대 상황은 서로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故郷>이 발표된 시기는 1931년 4월 21일에서 같은 해 4월

1) 임 화, 「본격소설론」, 『문학의 논리』(학예사, 1940), p. 374.

2)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선명문화사, 1974), p. 243.

28일로, 이 때는 소위 문인에 대한 탄압과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KAPF 1차 검거(1931년 6월) 이전이다. 한편 <思想의 月夜>가 발표된 시기는 1941년 3월 4일에서 같은 해 7월 5일로, 이 때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기 직전으로(1941년 12월) 탄압과 검열이 극도로 가열해지고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아래 창작된 두 소설을 통해서 작가로서 李泰俊이 그와 같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또 그것은 그의 문학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와 그의 문학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두 소설의 사회성과 미학적 측면을 비교, 대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 여기서 연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미리 밝혀 둔 것이 있다. 李泰俊은 한 작품을 가지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개작을 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장편 <思想의 月夜>도 그런 경우다. 개작 이전 『每日新報』에 연재된 것에 비해 1946년 을유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개작본에서는 해방 이후 자신에 대한 변명의 어조는 물론, 주인공의 입을 통해 자신이 상당히 강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작된 <思想의 月夜>는 처음 발표한 작품과는 별개의 작품이라 할 만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의 연구 대상 텍스트를 처음 발표한, 개작 이전의 것으로 한정하였다.

II. <故郷> - 歷史・社會 속의 ‘나’의 현실 비판

단편 <故郷>은 『東亞日報』에 연재된 소설로, 주인공 김운건을 통해 李泰俊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 자전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여기에는 일제 치하라는 시대적 배경에 처한 한 지식인의 눈을 통해 당시의 모순에 찬 식민지 한국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 이 작품은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강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李泰俊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 김운건은 6년간의 東京 유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정치학부를 마치고 나라를 위해 뜻있는 일을 하겠다는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귀국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귀국 길에서부터 조국의 현실에 우울한 심정이 되고, 또 고국에 돌아와서는 조국의 동포들은 제 이익, 제 편함만 밝히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 신세를 지게 된다는 줄거리의 소설이다.

조국과 동족에의 신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주인공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겪게 되는 배신과 환멸을 소설화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귀국할 때의 주인공은 자신의 고향을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나의 고향은 어대나?」

운전은 심사가 올컬할 때마다 모든 책을 다다미 위에 집어 내던지고 그 리운 곳을 톱파보곤 하였다.

함경북도 배기미나, 서울이나, 철원이나, 그저 막연하게 조선땅이나, 그러면 배기미나 서울이나 철원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모도 없다. 배기미 갖지도 안타. 서울도, 철원도 아닌 것 갖다.³⁾

위의 인용문은 주인공에게 고향이 없다는 말로 새겨 들어서는 안 된다. 작가는 온 조선이 내 고향이라는 귀국 청년의 여유로운 마음을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내 고향은 철원도 아니요, 배기미도 아니요, 서울도 아니다. 부산부두에 발을 올려 되시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쉬일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쫓을 나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잇술 것이다. 어서 신들미를 끌으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당 신만은 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여 주시오. 이렇게 부르지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마저 줄 것이다. 오! 어서 닥들러다오!」⁴⁾

그가 온 조선 땅이 다 내 고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위의 글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곧 그는 고국에 가면 그 곳에 자신과 손을 잡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싸울 조선 청년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 李泰俊, <故郷>, 『東亞日報』(1931. 4. 21)

4) Ibid., 『東亞日報』(1931. 4. 22)

고국을 향해 출발한 주인공은 고국에 닿기도 전, 일본 땅에서부터 실망하기 시작한다.

일본 동해도선에서 만난 낯익은 유학생 청년은 지식인으로서 조국의 주권을 되찾는 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인물이지만 민족의 불행은 외면하고 「xx은행」에 취직했다면서 제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은 울분을 느낀다. 주인공은 이 「xx은행」에 취직을 했다고 혼자 득의양양해 있는 그 동족 청년과, 그와는 반대로 참담한 행색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고 다시 한 번 우울에 잠긴다.

주인공과, 배 안에서 만난 조선 노동자와의 대화는 일제의 한국에 대한 수탈을 고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주인공이 조선 노동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들여 오느냐고 묻자 상대는 빈손으로 나간다고 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침에는 조선 사람도 일원 이십 전씩은 주었다는데 내가 갓슬 때는 八十전 줍니다. 그것도 요즘은 五十 전씩 주니 무얼 모아보는 수가 있셔야지요.」⁵⁾

1920년대 이후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끌어들이었는데 그들은 민족 차별, 열악한 노동 조건, 형편 없는 저임금으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저임금의 경우는 극히 심한 것이었는데 한국인의 경우 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 노임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이 소설은 여기서 그들의 그러한 노동력 착취의 실상을 비판하고 있다.

또 주인공과 그 노동자의 다음과 같은 대화도 현실 고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교향에 가시면 농사 하십니까?」

「농사니 농토가 있셔야죠. 우리 제각금 저 한몫만 가트면 조밥보다는 나으니 일본서 썩굴겠지마는 돈들도 못벌 바에야 첫째 처자식 그리워 허탕대구 나오지요.」⁶⁾

乙巳保護條約으로 사실상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9년 東洋拓殖會

5) Ibid, 『東亞日報』(1931. 4. 24)

6) 李泰俊, loc. cit.

社를 세워 이를 통해 한국의 토지를 강점하기 시작했다. 한일합방 10년만인 1920년 현재 이 회사 소유 한국의 토지가 9만 7백여 정보(3억 평)라는 광대한 규모였다⁷⁾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논밭을 빼앗긴 한국의 농민들은 결국 만주와 같은 황무지로 개간 이민을 가거나 유리 결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구절은 바로 그러한 당시의 한국인들의 비참한 삶을 그려 보여 주고 있다.

거기다 아무 일 없이 조선 청년이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배에서부터 기차를 탈 때까지 일본 형사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시달림을 당한 주인공은 차츰 더 울분이 차 올랐다. 그 위에 주인공으로 하여금 더욱 분을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민족적 의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모두 감옥으로 끌려가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그는 얼마 전 동경서 「올 같은 불경기에 조선서는 감옥 증축에 삼십여 만원을 예산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생각이 났다.”고 한 구절은 상당히 강한 현실 비판의 목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玄鑣健 단편 <故郷>의 결말에서 주인공이 부르고 있는 민요 중 「달마되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한 구절을 연상케 하는 위의 구절은 많은, 민족의식을 가진 결기 있는 한국인들이 일제에 의해 투옥당한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 하겠다.

작가는 여기에 식민지 한국의 참담한 현실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 돈이 떨어져 여관에서 쫓겨난 주인공은 배가 고파움을 느끼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다짐을 한다.

「오늘 저녁에 저녁을 굶는 놈이 나뿐이나? 아니다! 오늘 저녁에 한테서 밥을 새일 놈이 나뿐이나? 아니다! 이곳엔 넘어나 그런 사람이 많다. 나도 이 쟁에 낫스면 이 쟁 사람이 당하는 팔세를 달게 밟자!」⁸⁾

이것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수탈을 당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거의 전 민족이 일제에 짓밟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멸시와 탄압과 기아에 시달려 지옥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일신의 안일만 찾아 스스로 일본의 노

7) 趙職濬, 『三人農業移民과 東洋拓殖會社』, 『韓國近代史論 I』(지식산업사, 1977), p. 66.

8) 李泰俊, *op. cit.*, 『東亞日報』(1931. 4. 27)

에로 만족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 지식 청년들을 본 주인공은 분을 참지 못해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다 결국 경찰에 붙들려 간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故郷>에서 작가는 크게 두 표적을 비판·공격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역사적, 반인륜적 식민 통치다. 남의 나라 주권을 빼앗고 죄 없는 그 나라 젊은이들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민족적 의기를 가진 청년을 체포, 투옥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음은 한국의 농토를 강점하여 농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 유랑하게 하고 살 길을 찾아 헤매는 한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탄압과 점령을 의식해서였지만 상당히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다.

작가가 이 소설에서 직설적으로 신랄하게 매질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표적, 당시 일본에 빌붙어 자신의 안락만을 꾀하고 있었던 한국 지식인들이다. 그는 나라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커녕 찾아간 곳마다 외면했고,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비위를 맞추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보하고 있는 현실에 분을 참지 못한다. 주인공이, 온 민족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본인에 빌붙어 제 일신의 이익과 안일만을 찾고 있는 동족에게 「구복에만 충실한 게」라고 욕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작가의 당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 것이라 하겠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때 나라를 되찾으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던 사람들까지 민족에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에 आयु하는 풍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작가는 여기서 당시의 그러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결국 한국 땅 전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조국에 돌아온 주인공은 고향도 조국도 없어서 있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작가 자신의 심경을 말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故郷>은 항일적,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소설로, 특히 한 편의 민족주의 문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문학이란 혈연·역사·언어·전통·관습·문화를 같이 하는 인간 집단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키려는 사상이 담겨 있는 문학이라고 할 때 <故郷>은 바로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⁹⁾

Ⅲ. 〈思想의 月夜〉 - 閑談에 머문 단순 회고

李泰俊의 장편소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잡지나 신문에 연재되어 발표가 되었다. 이 장편 연재소설들은 기존의 단편소설들과는 달리 대중의 요구에 보다 융합하도록 씌어졌는데, 대부분이 연애담이나 흥미 위주의 이야기였다. 그의 소설이 이러한 연애담, 스토리 텔링 위주가 된 원인으로는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시대 상황을 들 수 있겠다.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가열해진 상황에서 문인들은 친일과 절필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시대 상황에서는 식민지 현실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문학은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그러한 현실에서 허용된 것이 이와 같은 장편소설이었다.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思想의 月夜〉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은 97회에 걸쳐 『每日新報』에 연재된, 자전적 성격이 강한 장편소설이다. 해방 이후에는 개작을 거쳐 1946년 을유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개작 이전의 신문 연재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왜냐하면 해방 후의 단행본에서는 신문 연재본의 마지막 부분을 대폭 수정·삭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작하면서 처음 발표 당시의 작품에서 현실 追隨의인 성격이 다분한, 주인공의 동경 유학 생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동경의 달밤' 부분을 모두 삭제했고, '현해탄'의 내용에서도 개작하면서 일본이라는 소설 공간을 없애 버렸다. 또 개작본에서는 주인공을 애국 청년으로 묘사하여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조하였으며, 주인공의 아버지 또한 민족주의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와 같은 면을 볼 때 이는 해방 이후 자신의 입지를 고려한 의도적인 개작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개작된 단행본은 본래의 작품과는 아주 다른, 별개의 작품이라 해야 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처음 발표한, 신문 연재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李泰俊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편의 자전적인 소설을 남긴 작가다. 그 중에서도 이 〈思想의 月夜〉는 바로 李泰

9) 장양수, 「채만식의 민족주의문학 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p. 14.

俊 자신의 생의 기록이라 할 만큼 전기적 사실이 일차적인 해체와 재구성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연애담 위주의 신문 연재 장편 소설에다, 자신이 살아온 내력의 이야기가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이 작품에서 어떠한 문학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思想의 月夜>에서 주인공 이송빈은 李泰俊 자신으로, 이 작품에서는 유소년기에서부터 동경 유학시절까지를 다루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단편 <故郷>에서는 동경 유학 생활을 마친 시점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思想의 月夜>는 발표 시기는 늦지만 내용상으로는 <故郷>보다 앞선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원산에서 덕원감리를 지낸 송빈의 아버지는 개혁의 의지를 가진 인물인데 그것이 반민족 행위로 몰려 일가족을 데리고 아라사땅 해삼위라는 조그마한 어촌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는 거기서 죽고 만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 아버지가 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 일가가 몰락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급진 개화파의 일원이었던 송빈의 아버지는 급변하는 역사의 현장에 뛰어 들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전편에 걸쳐 그의 정치적 행적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런 송빈의 눈으로 바라 본 애상적이고 감상적인 심정만이 그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처음부터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 하거나 인생이나 현실을 심각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빈의 아버지가 죽자 그 일가는 웅기만 배기미에 정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유복녀인 해옥을 분만하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소청거리로 옮겨와 자리를 잡게 된다. 송빈이네는 그 곳에서 집을 사고 음식점을 시작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송빈이는 서당에 나가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던 중 어머니마저 죽게 되자 주인공이 고아로서 겪는 냉대와 외로움, 이 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유년 시절 체험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다. 그러다 송빈은 철원 용담에서 봉명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고아로서 여기저기 친척집을 옮겨 다니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과거의 작가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대로 재현해 나가고 있다. 상당히

장황한,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 역시 단순한 회고담 이상 아무런 주목할 만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이런 완고한 선생님이 학감으로 계시면서도 봉명학교는 작고 변해갔다. 졸업식때나, 창립기념식 때는 읍에서 군수도 나오기 시작하더니, 용담에 새벽 나팔소리가 쏜혀졌고, 교련시간이 그냥 체조시간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송빈이가 사학년이 된 여름에는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가려면 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졸업반인 사학년생들과 이미 졸업한 사람들까지도 학교에 모아노코 「국어강습회」가 열리었다.¹⁰⁾

위에서 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봉명학교의 변화는 한민족사에서 보면 심각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위에서의 「새벽 나팔소리」는 일본의 강제 해산으로 밀려난 구한국군 장교 출신의 체조 교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의기를 심어 주려고 불던 것으로, 그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일본이 이를 압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목총을 들고 하던 교련 시간이 체조 시간으로 바뀐 것은 그 총이 비록 상징의 의미밖에 없었던 것이었을망정 일본이 한국인의 주권 회복 의지를 꺾어 버리려 한 것을 말해 준다. 또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모아 놓고 가르쳤다는 「국어」는 우리 말, 우리 글 아닌 일본어를 말한다. 이는 이 때 일본이 한민족을 일본인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주인공의 심적 갈등이나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울분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작가는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한가한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다.

송빈이 서울에서 휘문고보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정황의 묘사에 그치고 말아 단편 <故郷>에서와 같이 식민지 시대 교육 현실이나, 교육받은 지식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단지 지난 시절 회상 수준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지닌 한계라 할 수 있겠다. 이 소설은 <故郷>에서처럼 지식인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고민, 직접적인 항거의 자세를 보여 주지 않고 시종일관 과거에 있었던 일, 경험했던 사실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서술하는

10) 李泰俊, <思想의 月夜>, 『毎日新報』(1941. 4. 6)

데 그치고 만다. 또 이 소설은 별 의미 없는 사적인 체험을 장황하게 들려 주고 있어 객담이 주는 소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한, 한 여성과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 자신으로서는 감회가 깊은 회고일지 모르나 독자에게는 지루하고 치기 어린 연애담 이상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이 작품은 李泰俊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마치 일기를 쓰듯 그대로 서술할 뿐 인생이나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복사한 단순 회고담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소설은 작가가 자기의 사생활을 그린 한 편의 무의미한 사소설¹¹⁾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소설이란 1920년 말에서 1921년 초 일본 문단에서 당시에 주목을 받고 있던 자전적 성향의 작품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이는 자신의 사사로운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작가의 감춰진 죄악을 까발리는 대신에 보통 사소한 신변사의 의미를 반추하는 일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¹²⁾

이러한 사소설의 특징적인 면모에 기준을 두고 해석해 보더라도 李泰俊의 이 작품은 신변잡기적 내용을 마치 옛날 이야기하듯 하고 있어 한담 이상의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야말로 한 논문이 말하고 있듯, 그는 자신의 생애를 모아 한 줄에 꿰는 작업을 벌였고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¹³⁾ 여기에는 그의 단편에서와 같은 특별한 주제가 들어 있지 않으며, 그저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 소설의 위와 같은 면은 사소설의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고바야시 히데오의 『사소설론』(1935)에 의하면 사소설 작가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외로운 사색에 임하는 미학적 은둔자의 일종이며, 그러한 사색은 사회화된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나의 순화'에 전념한다¹⁴⁾고 한다. 소설 속의 송빈 역시 마찬

11) 한용환은 1920년대 혹은 1930년대의 한국 소설에서 '순수문학'을 주장한 이태준, 박태원, 안희남 등의 작품 가운데 일본의 사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 상당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소설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한용환, 『소설학 사전』(문예출판사, 1999), p. 210.

12) *Ibid.*, pp. 207~208.

13) 송하춘, 「이태준론」, 홍성암·유순영 편, 『현대작가론』(삼영사, 1999), pp. 203-204.

가지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 직접 항거하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개인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연애 감정만을 토로하고 있다든가, 사회성이나 비판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현실 참여 의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한 편의 자기 경험의 고백물, 즉 閑談에 머물고만 단순 회고록에 지나지 않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思想의 月夜>에서는 민족적 의기, 망국민의 한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반대로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모델 또는 일본에 대한 흠모 같은 것을 보게 된다.

저게 조선옷이었나! 하리만치 처음처럼 조선옷부터가 세삼스럽게 보였다.
차에서 배에서 석탄연기에 쓰우고 꾸기고 말리고 한 베갯 모시것들은 흰옷
이 흰옷다운 면목이라고는 웃고름 하나가 제대로 엮었다.
「우선 기차와 기선생활을 못할 옷이다! 현대인의 옷일 수 없다!」
송빈이는 흰옷들을 보는 것이 민망스러워졌다.¹⁵⁾

동경행 기차 속에서 조선 옷과 조선 사람을 보고 하는 생각이다. 유학 길에 오른 사람이 이국 땅에서 하는 생각, 하는 말로는 심하게 자기 비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읍내 간이 농업학교에 다니던 주인공은 서울로 가서 더 큰 꿈을 이루려고 무작정 집을 뛰쳐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 그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을 내리게 한 계기를 읽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불편한 심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주인공이 사나이로 나서 한 번 큰 일에 뜻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준 것은 이등박문이 지었다는 다음과 같은 한시 한 편이다.

男兒立志出鄉關	사나이 뜻이 서서 향관을 쉰난바에
學苦無成死不還	배워 이름이 업시야 죽은들 돌아올것가.
埋骨豈期墳墓地	뼈 묻기를 어찌 분묘지에 기약하리요
人間到處有青山	인간 이르는 곳마다 푸른 산은 잇도다. ¹⁶⁾

14) 한용환, *op. cit.*, pp. 209-210.

15) 李泰俊, *op. cit.*, 『每日新報』(1941. 6. 22)

큰 뜻에 한 몸을 던진 인물은 우리 역사에도 숭하게 많다. 佛道를 깨치기 위해 열 사람이 떠나면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는 인도를 찾은 慧超가 그렇고, 싸우다 죽지 못하고 적에게 붙들렸다가 놓여나 살아 돌아온 것이 수치스럽다 하여 다시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한 官昌의 이야기같은 것이 그런 경우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하필 이 나라, 이 민족을 일본의 노예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등박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등박문은 한국을 일본에 합병하려는 뜻을 실행해 가다 그로 보아서는 이국인(안중근 의사)의 손에 먼 타관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니 한국 문학 작품에 한 인간을 감화시키는 이야기로 등장시키기에는 많이 부적합 인물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문은 우리에게 어떤 공분심, 모욕감까지 느끼게 하는 데가 있다.

IV. 격차 큰 美學的 優劣

이제 두 편의 자전적 소설 <故郷>과 <思想의 月夜>가 문예 미학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격차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두 편 모두 자전적인 요소를 보이는 작품임에는 틀림 없으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작품성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자전소설은 특정한 사람들의 생애의 역사를 뜻하는 傳記(biography)¹⁷⁾나 작가가 자신에 대해서 쓴 전기인 自敘傳(autobiography)¹⁸⁾과도 구별되는 장르다. 자서전은 한 사람의 정직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한다는 자의식이 충만한 고백록이다. 따라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 소설적, 혹은 문학적 자서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전소설은 이와는 다르다. 전기적 사실은 단지 재료가 될 뿐이고 그것을 해체, 재구성하여 창조한 것으로, 이는 소설적·문학적 자서전과는 달리 자서전적 성격을 띤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든 전기나 자서전과 자전소설은 장르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실제

16) Ibid., 『每日新報』(1941. 4. 8)

17) M. H. Abrams, 『문학용어사전(최상규 역)』(예림기획, 1997), p. 36.

18) Ibid., p. 37.

사실에 충실한 '전기'의 범주에 머무는 것이고, 후자는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거친 '소설'이다.

자전소설은 이와 같이 전기나 자서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 허구의 성격은 작가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¹⁹⁾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전소설은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 특정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고 구성하여 자아의 경험을 다시 쓰게 하는 과정이라²⁰⁾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전소설의 내용상의 특성에 기준을 두고 <故郷>과 <思想의 月夜> 두 편을 비교해 보았을 때, <故郷>은 <思想의 月夜>보다 문예 미학적으로 우수성을 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故郷>에서는 李泰俊 자신이 살아 온 현실을 해체, 허구화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한 편의 훌륭한 자전소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故郷>은 주인공 김윤전이 동경 W대학 정치학부에서 졸업을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 작가는 上智大學에 다니다 1927년 중퇴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작중 인물의 학력과 상이하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실제 사실을 굴절시켜 허구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인으로서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 걱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안일만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이나 관공서에 취직하려 혈안이 된 사람과 당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폭행 사고를 저지른 것 또한 지어낸 상황 설정이다.

실제로 일본 유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모국에서 마음껏 펼쳐보리라 기대했던 李泰俊은 귀국한 후 심한 挫折을 겪었다. 그리하여 그는 파고다 공원 주위를 서성거리는 등 서울을 彷徨하게 된다. 그러다 1929년이 되면 <開闢>社에 입사하여 차츰 문필 활동을 펼쳐 나간다.²¹⁾ 이러한 전기적 사실을 고려해 볼 때도 李泰俊 자신이 심정적으로는 의분심이 나 지식인들의 언행에 반감을 가지기는 했어도 실제 폭행을 한다든가 경찰 신세를 지게 된 사실은 현재까지 확

19) 한용환, *op. cit.*, pp. 376-377.

20) 최인자, 「정체성 구성 활동으로서의 자전적 서사 쓰기」, 『현대소설연구 제11호』(현대소설학회, 1999. 12), pp. 329-330.

21) 민충환, 『이태준 연구』(김은생, 1988), p. 33.

인된 그의 어느 연보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또한 현실에 바탕을 둔, 지어낸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자전소설에서는 종교, 정치, 예술 등에 관한 지적 관심을 짚게 드러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산문 허구의 양식은 또한 주인공의 내면이 갖는 깊이와 높이를 직접적으로 잘 반영하기도 한다.²²⁾ 정치적 요소에도 관심을 보이는 자전소설의 이같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故郷>은 주제적인 면에서 사회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조국을 문제 삼는 이야기지 주인공 '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적인 이야기 개진에 머문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故郷>이란 단편은 李泰俊의 자전적 소설이면서도 단지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아의 正體性을 드러내 보여주는 데에 이르고 있다. 지난 날 과거의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만나는 보다 역동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문예 미학적 우수성을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이 자전소설에는 허구가 끼어 들고 작가가 자신의 체험이 재편되어 등장 인물의 사상, 감정, 언행이 작가 개인의 것이 아닌 당시 식민지 한국인 보편의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폭넓은 공감을 사고 있으며, 작가는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서 보다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의 일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곧 작가는 민족적·국가적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나 혼자만 편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위와 같은 허구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故郷>이 단순 회고록이나 사소설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작품임에 비해 <思想의 月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변잡기적, 단순 회고록적인 성격을 지닌 사소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듯 기록한 기록물에 불과할 뿐, 아무런 공적인 쟁점이나 문제성도 제기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 이 소설의 중심 사상이나 핵심적 의미, 곧 주제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일장의 閑談으로, 소설이란 장르로의 진화 이전에 머문 자전소

22) 조남현, 『소설원론』(고려원, 1984), p. 311.

설 아닌 단순한 자전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곧 이는 소설이라는 예술 작품이라기보다 한 개인의 체험의 轉寫, 지나간 날의 일상의 복사에 불과한 기록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故郷>에 비해 <思想의 月夜>는 어떤 특정한 가치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고 구성하여 자아의 경험을 다시 쓴 것이 아니다. 또한 자전소설의 특징인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보다는 어린 시절 자신이 살아온 내력의 진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겹겹 강화, 탄압 가열이란 시대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나, 그런 상황과의 관련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문예 작품으로서 <思想의 月夜>의 명백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작품은 조국이나 민족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요, 사회 의식이나 비판 의식, 참여 의식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思想의 月夜>는 <故郷>과는 문예 미학적인 면에서 명백한 대조를 이루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간추려 정리하자면 문예 미학적인 특성을 고려해 두 작품을 살펴볼 때 <故郷>은 자전적 요소를 바탕으로 허구적 요소를 지닌 한 편의 자전적 소설임에 틀림없으나, <思想의 月夜>는 문학적 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편의 소설적 자전에 지나지 않는 작품이다.

V. 結論

한 작가의 작품이 시대 상황과 결부되어 작품 경향의 변모는 물론, 문학적 가치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李泰俊의 자전적 성격을 띤 두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를 살펴보았다. 단편 <故郷>과 장편 <思想의 月夜>가 바로 그것으로, 식민 상황에서 일제의 조선 통치의 유희와 경화에 따른 두 작품의 변모 양상을 통해 소설가로서의 李泰俊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고 미학적 우수성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단편 <故郷>은 비교적 작가가 강성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시기에 쓰여진 작품으로, 일제 치하에 산 한 지식인의 눈을 통해 당시의 모순에 찬 식민지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린,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두 가지 표적을 비판, 공격한다. 하나의 표적은 일제의 한국에 대한 반역사적, 반인륜적 식민 통치다. 귀국하는 배 안에서 만난 초라한 행색의 노동자를 통해 일제가 한국의 농토를 강점해 한국인들로 하여금 삶의 터전을 잃게 하고 있으며, 농토를 잃고 살 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 조선인들은 주인공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가진 농토가 없어 농사를 짓고 살 수도 없다고 한 것은 일제의 한국 농지 강점을 고발하는 대문이고, 일본인들이 갈수록 노임을 낮춰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해 가면서 일을 하고도 한 톨도 모으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한 말은 그들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노동력 착취를 고발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 소설은 이어 주인공 자신 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집도 없이 떠돌고 있다고 하여 일본이 식민지 한국에 대해 심한 수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소설은 또 주인공의 입을 빌려 일제가 많은 민족 의식을 가진, 결기 있는 한국인들을 체포, 투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주인공은 과거 자신이 존경했던, 민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찾지만 그들이 모두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절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이 소설은 당시의 친일 한국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때 나라를 되찾으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던 사람들까지 민족에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에 아유하는 풍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작가는 여기서 그러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땅 전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조국에 돌아온 주인공은 고향도 조국도 없어서 있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작가 자신의 심경을 말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故郷>은 한 편의 항일적인,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소설로, 특히 한 편의 민족주의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혈연·역사·언어·전통·관습·문화를 같이 하는 인간 집단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

키려는 사상이 담겨 있는 문학을 민족주의 문학이라 할 때 <故郷>은 바로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둘째, <故郷>보다 발표 시기가 약 10년 정도 뒤의 작품인 <思想의 月夜>는 보다 검열이 강화되고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된 시기에 발표되었다.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작품 내에서 그다지 작가의 강성 발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자전적 성격을 띤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思想의 月夜>는 작가 자신의 유소년기로부터 동경 유학 시절까지의 체험만을 장황하게 묘사한 단순 회고담에 불과한 작품이다. 당시 일본의 한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울분, 민족적인 의기, 망국민의 한, 현실 개량의 의지 같은 것은 전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제가 한민족을 짓밟고 일본어를 국어라 하여 강제로 가르쳐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려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작가는 여기에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한가한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이 소설은 별 의미 없는 사적인 체험을 장황하게 들려 주고 있어 대답이 주는 소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한, 한 여성과의 사랑이야기에서 보면 이는 작가 자신으로서는 감회가 깊은 회고일지 모르나 독자에게는 지루하고 치기 어린 연애편 이상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 소설은 어떤 대목에서 한국인에 대한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일본인을 존경하는 말까지 하고 있어 독자에게 공분심, 모욕감까지 불러 일으키는, 민족을 배반하는 면모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면을 두고 볼 때 이 소설은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중심 사상, 핵심적 의미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별 의미 없는 서사들에 머무르고 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설 미학적인 면에서도 두 작품간의 우열을 볼 수 있다. <故郷>은 李泰俊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그대로 회고하여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체험을 해체, 허구화하여 재구성하고 있으므로 한 편의 훌륭한 자전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 자전소설에는 허구가 끼어 들고 작가 자신의 체험이 재편되어 등장 인물의 사상, 감정, 언행이 작가 개인의 것이 아닌, 당시 식민지 한국인 보편의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독자의 폭넓은 공감을 사고 있다. 그리하여 <故郷>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보다 사회적, 민족적인 범주로 확대

하여 문학적 형상화를 이룩한 한 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자전적 소설로, 독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思想의 月夜>는 어떤 특정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고 구성하여 자아의 경험을 다시 쓴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소설에 불과했다. 아무런 공적인 쟁점이나 문제성도 제기하고 있지 않아 중심 사상, 핵심적 의미, 곧 주제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조국이나 민족을 문제삼는 것도 아니고 사회 의식이나 비판 의식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일장의 閑談으로 소설이란 장르로의 진화에 머문 자전소설 아닌 단순한 자전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소설이라는 예술 작품이라기보다 한 개인의 체험의 轉寫, 지나간 날의 일상의 복사에 불과한 기록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故鄉>이 문예물로서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현실 참여적인 한 편의 자전소설이라면 <思想의 月夜>는 사회성과 예술성이 다 같이 함양 미달인, 소설 양식을 빌린 자기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서사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단편 <故鄉>과 장편 <思想의 月夜>를 중심으로 식민 상황에서 李泰俊의 자전적 소설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편 다 고향과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상이한 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비록 문인에 대한 일제의 탄압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李泰俊이 한 사람의 작가로서 시대 상황의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유약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성향은 해방 후 자신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월북하여 그 개인으로나 한국 문학으로나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연구』(민음사, 1988)
-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선명문화사, 1974)
- 민충환, 『이태준연구』(깊은샘, 1988)
- 상허문학회, 『이태준문학연구』(깊은샘, 1993)
- 송하춘, 『이태준론』, 홍성암·유순영 편, 『현대작가론』(삼영사, 1999)
- 신용하, 『민족이론』(문학과 지성사, 1986)
- 이익성, 「〈思想의 月夜〉와 자전소설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한국근대
장편소설연구』(모음사, 1992)
- 이태준, 〈故郷〉, 『東亞日報』(1931. 4. 21 ~ 28)
- 이태준, 〈思想의 月夜〉, 『每日新報』(1941. 3. 4 ~ 7. 5)
- 임 화, 『본격소설론』, 『문학의 논리』(학예사, 1940)
- 장양수, 「채만식의 민족주의 문학 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 조기준, 「일인농업이민과 동양척식회사」, 윤병석, 『한국근대사론 I』(지식산업
사, 1977)
- 조남현, 『소설원론』(고려원, 1984)
- 최인자, 「정채성 구성 활동으로서의 자전적 서사 쓰기」, 『현대소설연구 제11
호』(현대소설학회, 1999)
- 한용환, 『소설학사전』(문예출판사, 1999)
- M. H. Abrams,, 『문학용어사전(최상규 역)』(예림기획, 1997)

Abstract

Colonial Situation and Changing Aspects of Autobiographical Fiction of Lee, Tae-Jun.

— centering around his works 'One's home' and 'A moonlight night of thought'

Kim Do-Hee

This thesis is a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sociality and aesthetic aspect through 2 kinds of novels, centering around a short story 'One's home' and a novel 'A moonlight night of thought', of which were written by Lee, Tae-Jun.

Both these two works were expressed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and 'One's home' was written during the time when writer could comparatively freely express his thought. Throughout main character in the novel who is the other self, he pointed that colonial reign of Japan over Korea was an illegal and also blamed Korean intellectuals. Therefore this work can be called as a nationalism literature work because it has strongly reflected a criticism of reality and a will of participation

As for 'A moonlight night of thought', as it was written during the time when Japan had inspected and suppressed, we could not find a sociality, a consciousness of criticism, an idea of nationalism. He described his own experience tediously therefore we could not find any meaning more than autobiographical novel. In view above, it has a certain limitation.

In the light of aesthetic aspects, when we compare with them, a novel 'One's home' can be said as an autobiographical novel because it consists that he dissolved his own reality and to be fictionalized, so it is to be

shaped literarily. However 'A moonlight night of thought', as it was not shaped literarily, it is no more than an novelistic autobiography. In this respect, we can find a clear contrast between two works.